‘저소득층 집 개선’ 사업비 확대 절실

제주시·LH, 2015년부터 사업 추진… 세대당 비용 한정
오래된 건물 ‘결로현상’에 추가 보수 필요한 경우 많아

저소득층 대상 집 개선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기초생활수급자인 강모씨(62)의 주택은 지난해 10월 제주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집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창문, 도배, 장판, 방수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그런데 공사한지 1년 정도가 지난 16일 집안 상황은 내부 벽면과 천장 등 창문을 제외한 모든 벽체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돼 있었다. 특히 곰팡이가 너무 심하다보니 도배를 완전히 새로 해야 될 지경에 놓였다.

이처럼 집 수리사업이 시행됐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산 부족 문제와 해당 건물 거주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택의 경우 건물 자체가 오래된 집이라 벽체 단열제가 없어 결로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현상을 없애려면 천장을 뜯어내고 천장부터 모든 벽면에 단열재를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 개선사업의 경우 1세대당 최대 1026만원(또는 창문, 도배, 장판, 방수 등의 공사)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택을 제대로 개선해주기 위해서는 1세대당 투입되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일선 건축가들의 설명이다. 또 기초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만 지원이 가능해 건물 전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또는 거주자와 함께 건물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벽면과 천장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한 주택. 이상국기자

도내 건설회사에서 건축소장을 맡고 있는 문모씨(43)는 “창문, 도배, 장판, 방수 등의 공사로는 오래된 주택을 제대로 개선할 수 없고, 특히 곰팡이 등을 막을 수가 없다”며 “천장부터 전 벽면에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정책과 제한된 예산 등의 문제로 한 가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또 해당 주택의 건물 전체에 문제가 있다보니 건물주나 다른 거주자와 협의를 통해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거주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태라 해당 건물 거주자와 공사 관계자 등과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2020학년도 제주형자율학교 교육청, 가마초 등 6곳 지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 ‘다혼디배움학교’ 6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학교는 가마초와 대흘초, 영평초, 하도초, 하원초, 한천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신규 학교를 공모한 뒤 ‘제주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도내 초중고 44곳이 다혼디배움학교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제주형 자율학교의 대상을 넓혀 제주시 동지역 영평초를 신규 지정 학교에 올렸다. 이전까지는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원도심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했지만 중·대규모 학교의 교육중심학교 모델 개발 등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추가 지정된 학교는 2024년까지 제주형 자율학교로 운영된다. 이 기간 제주특별법 특례에 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구성된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관련 예산과 교직원 연수, 교무행정 인력을 지원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 해변의 이색풍경… 군락 이룬 선인장 17일 선인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맑은 제주의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식품위생법 위반 도내 음식점 5곳 적발

제주지역 음식점 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전국 공원과 유원지 등의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000여곳을 점검한 결과, 9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음식점 5곳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3개월 안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8일 금요일 음 9월 20일 (12물)

기상정보

흐리고 가끔 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산지와 북동부에는 가끔 비가 지나겠다. 아침 기온은 18℃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22~23℃까지 오르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60%	제 주	60%
60%	성 산	60%
20%	고 산	20%
20%	서귀포	30%

	해뜸 06:40 해짐 17:58	달뜸 20:57 달짐 10:27
물때	만조 00:21 13:14	간조 07:05 19:52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18/22℃
모레	맑음	16/21℃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보통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제주경제 그나마 ‘관광’ 덕에 버틴다

소비자심리지수 99.4 기록
숙박·음식업 중심 소비 활발
건설수주액 1년새 2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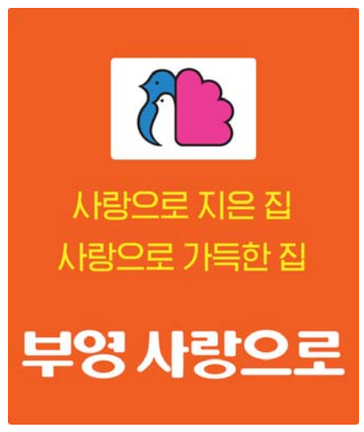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관광수요 증가에 힘입어 현상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1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중 소비자심리지수는 99.4로 전월 대비 2.8p 상승했다.

소비의 경우 제주지역 가맹점 기준 지난 7월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늘며 총 3700억원에 이른다. 최근 3개월 간의 도내 내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6월 -2.0%를 기록했으나 이후 7월 3.1%, 8월 8.4% 각각 늘었다.

건설부문의 경우는 8월 건설수주액이 300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21.1% 하락했다. 건축착공면적도 9월 8만8000㎡으로 1년 전보다 24.3% 감소했다. 다만 9월 건축허가면적은 비주거용 면적 확대에 따라 14만5000㎡를 기록, 작년보다 1.5% 늘며 오랜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8월중 농산물 출하액과 수산물 출하량이 동반 감소하고, 수출입도 반도체 등 전자·전기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하락세다.

9월중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폭염 영향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2017년 9월 기준 16.1%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일시 하락했다. 부동산가격도 하향세다. 9월중 취업자수는 9000명 늘었다. 백금탁기자

독자제보 750-2232